

# 투싼·K5 '신차 효과' ... 현대·기아차, 中서 잘나가네

### 9월 13만3653대 판매 ... 전달보다 39% 급증 현대차 투싼 적기 투입 SUV시장 확보 성공 기아차 KX3, K4 성장세 ... 신형 K5 공략 나서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 실적이 적극적인 영업활동 강화와 '신차효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9월 중국시장에서 13만3653대를 판매해 전달(9만6154대)에 비해 39.0% 급증했다고 5일 밝혔다.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큰 폭의 판매 성장세다. 현대·기아차의 지난달 판매량은 전년 같은 달과 견줘선 12.2%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8월에 기록했던 전년 동월 대비 판매감소폭(-26.6%)과 견주면 대폭 개선됐다. 올 들어 9월까지 누적 판매는 127만2158대로 전년에 비해 11.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 회복세를 주도한 건 현대차다. 현대차는 지난달 중국시장에서 9만108대를 판매해 8월보다 28.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역대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9만3000여대)에 근접한 실적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가격인하, 딜러 지원 확대 등 판매 경쟁력 강화로 경쟁사들의 가격적인

하 공세를 방어하고 '신형 투싼' 등 신차를 적기에 투입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 점유율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가 중국 토종 SUV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2만위안(370만원) 가격을 낮춘 투싼ix의 지난달 판매량이 1만20대에 달했다. 지난 3월 이후 6개월만에 1만대 고지를 다시 밟은 것이다. 중국 현지전략형 소형 SUV ix25는 8382대의 판매량으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 5월 중국 시장에 출시된 신형 투싼도 1만4대가 판매되며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 중국 전용 중형차 밉투도 1만5080대의 판매량으로 올 들어 월간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이밖에 베르나는 전월 대비 70.7% 급증한

1만6360대, 랑동(국내명 아반떼MD)은 32.8% 늘어난 1만9709대가 판매됐다. 기아차의 판매 회복세도 가파르다. 기아차는 9월 4만3545대를 판매해 전월 대비 67.4% 급증한 실적을 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만에 판매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도 -23.6%로 전월(-44.7%)에 비해 감소폭을 크게 줄였다. KX3, K4가 각각 3168대, 3463대로 전월보다 39%, 26%씩 증가했다. 지난 8월 가격을 인하한 구형 스포티지와 스포티지R도 전월 대비 각각 31.9%, 125.4%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성수기인 4분기에도 중국 판매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신형 투싼 등을 활용한 SUV 동시 시승 행사, 이달 중국 시장에 첫 선을 보이는 신형 K5 등 주력 차종

의 현장 판촉 활동 강화, 무이자 할부 등 고객 혜택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난달 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발표한 자동차 '구매세 인하' 정책도 판매 확대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세금감면 대상인 소형차 판매 비중이 각각 67%, 63%에 달한다. 현대차 쏘나타와 신형 투싼의 경우 파사트, 캠리, CR-V 등 경쟁차종엔 없는 1.6 엔진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달 판매에 돌입하는 기아차 신형 K5도 1.6 엔진라인업을 갖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배기량 1.6ℓ 이하 승용차(RV 포함) 구매세가 기존 10%에서 5%로 감면되면 하반기 전여 기간 실적 개선 폭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 중국형 K5.



현대차 신형 투싼.

## 폭스바겐 여파 수입차 재고 5만5000대

### 국내 소비자 외면 업체들 처리 막막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태에 따른 인식 악화로 최근 수입차 판매가 줄어드는 가운데 수입차 재고 물량이 5만5000여대에 달해 향후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딜러들이 앞다퉀 대규모로 수입차를 들여와 물량 공세를 벌였으나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국내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림에 따라 막대한 재고를 처리할 길이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입차 재고량은 5만4781대로 전년 동기(3만1702대)에 비해 72.8%나 급증했다. 수입차 재고량은 2011년 7774대를 기록한 이후 2012년 1만8480대, 2013년 2만9816대에 달했고 지난해 6만2980

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5만대를 훌쩍 넘어 이같은 추세면 연말까지 8만여대에 이를 전망이다. 수입차 재고 비율 또한 2011년 6.9%에 불과했지만 올해의 경우 8월까지 25.7%를 기록해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2012년 12.4%, 2013년 16.0%, 지난해 24.3%였다. 수입차 재고 비율이란 수입된 물량 중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은 차량 비율을 말한다. 그러나 날개 돋친 듯 팔리던 수입차는 폭스바겐 사태를 맞으며 국내에서 뒷걸음질치고 있다. 당사자인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판매 타격이 가장 크다. 아울러 수입차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면서 메세데스-벤츠, BMW 등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은 재고가 꾸준히 늘자 그동안 할인율을 높이면서 재고를 소진해왔는데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 잔뜩 위축돼 제대로 된 프로모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수입차 업체 딜러는 "수입차를 보는 국내 고객들의 시선이 싸늘해진 상황에서 적극적인 광고나 판촉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될 수 있어 조용한 판매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코리아의 경우 지난 9월 '스페셜 프로모션'을 통해 구매 고객에 제타 평생 엔진 오일 교환권, 무이자 할부 및 10만원대 유예 할부 혜택, 20만원 상당의 주유 할인 카드를 제공했으나 10월에는 악화된 대외 분위기를 고려해 프로모션을 중단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수입차 대리점들이 차량 판매보다는 A/S 및 할부 프로그램을 통해 이익을 내는 구조라는 점이다. 그동안 수입차 대리점끼리 물량 확보 경쟁을 벌였으나 수입차 판매가 주춤함에 따라 이제는 과도한 재고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태에 따른 인식 악화로 최근 수입차 판매가 줄어드는 등 향후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내를 비롯해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중고차 가격 하락 등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를 떨어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셈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태로 국내 수입차 판매 분위기가 뒤숭숭

한 가운데 수입차의 재고 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경영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유한회사 수호부동산 중개법인

(유)수호부동산 중개법인은 법원경매,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및 부동산컨설팅 등을 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중개법인체입니다.

### NPL(부실채권) 투자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 된 부실채권의 자산건전성(BIS)을 높이기 위하여 경매신청 전 후 매각하여 근저당권을 유동화(매도,매수)한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 합니다.

NPL 물건은 광주지역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취급가능

부동산 경매, NPL 투자에 관심있거나 참여하실분 선정 모집합니다. (채권확보는 1순위 근저당설정 등)

유한회사 수호부동산 중개법인 | 담당자 이수진 이 사 010-2170-3034 | 김태훈 본부장 010-4557-3034 | 사업자등록번호 464-88-00084 | 법인등록번호 200114-0058676

## 구 남영비즈타워가 상무비즈니스센터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상무비즈니스센터

시청도보 5분 거리 | 관공서 밀집 지역 | 오피스 전용 빌딩 | 넓은 주차공간 | 저렴한 관리비

임대문의: 010-2633-1100 | 관리실: 062-381-5551 | Fax: 062-384-5551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치평동 1210-4)